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상갑



“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지키십시오!”

계엄군이 ‘화려한 휴가’를 보내는 새벽 시간, 신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무도 잡들지 못한 골목골목을 돌며 피끓는 목소리로 광주 지키기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계엄군이 도청을 점령할 무렵 그녀의 호소는 바뀌었다.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녀가 지키려고 한 것, 잊지말아달라고 호소한 상대는 공간적 의미의 광주, 시민군 개개인 아니었을 것이다. ‘광주’와 ‘시민군’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시냇물인 것이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또 다시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전과 달리 정치적 기본권의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민생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정보통신 등 일부 첨단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수출이 3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추가자수도 2천 포인트를 넘나들

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경제가 수출기업과 대기업에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 결과 일자리 환경 역시 나빠져서 정규직

광주정신 실종된 광주정치

급여의 60%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55%를 넘어섰다. 주택보급률이 4년 전에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기집을 보유한 국민은 56% 수준이다.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소득(33조 5천억 원)이 정부 교육예산(2007년 31조)보다 더 많다. 돈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광주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에서

서 전적으로 시장의 원리에만 따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한 광주정신, 광주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한 정치가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밖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이 시장

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의 졸속적인 한미FTA협정 체결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

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열려서라도 것은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이야 그렇다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하는 개혁적 정치노선을 표방하는 반한나라당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에서 장관, 도지사, 3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자 탈당하여 반한나라당 진영으로 옮겨온 손학규 전지사의 정책노선이

그러나 우리가 밝혀야 하는 진실은 늘 과거의 일인데다가, 많은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 고소, 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가 각종 증거를 조작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적 진실인양 만들어 내면 그것이 법적 진실로 인정되어 역

한나라당이 가까운 반(半)한나라당적인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반(反)한나라당 정책노선을 주장해온 이른바 범여권 정치인들 중 일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손 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정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광주 지역 일부 정치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나아가 광주 지역의 일부 시민사 회단체 출신 인사들 역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혹자는 손 전지사가 70년대 운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동지의 귀환’이라는 현사 까지 바꿨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 운동권의 대부라고 한다면 손 전지사보다는 이재오 최고위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최고위원 역시 ‘동지’로 인정받아야 하는가. 어떤 이는 미래가 더 중요하므로 과거의 흠을 들추는 것은 분열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과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27년 전 신애가 지키려고 했던 ‘광주’, 잊지말아달라고 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광주정치가 광주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 칼럼

신자용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사와 고, 수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한다.

‘진실’이면 간명하고 족할 것인데, 왜 ‘실체적 진실’일까? ‘진실’과는 다른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일까?

실체 수사를 통해 밝힌 진실을 ‘실체적 진실’에 대응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는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법적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이라는 말로 표현

그러나 우리가 밝혀야 하는 진실은 늘 과거의 일인데다가, 많은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 고소, 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가 각종 증거를 조작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적 진실인양 만들어 내면 그것이 법적 진실로 인정되어 역

역사적 진실과 법적 진실

하고 싶다. 왜냐하면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늘 과거, 역사 속의 일이고, 역사적 사실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는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가 등장하는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역사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일치하므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역사적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거짓 주장일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

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이건 피해자이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과 법적 진실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수사기관이건 법원이건, 역사적 진실과 법적 진실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간의 논의나 최근의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결국은 법적 진실을 역사적 진실에 근접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광주지검 검사>

운전면허증에 ‘민원안내처’ 기재했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면허증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가장 보편화된 자격증 중의 하나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해 운전하다 보면 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시험 관련 사항, 적성검사, 자동차검사 등 분야에 걸쳐 문의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교통 관련 예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문의할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아주 불편하다.

짧은 사람이거나 나쁜 편이지만 나이가 많은 운전자나 여성운전자는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건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쉽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안내처’ 등을 기재했으면 한다.

▲이다운·광주시 남구 칠석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기고

채승석



‘구름발치’, 생소한 낱말입니다. ‘구름과 가장 맞닿는 높은 곳’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 애호협회 산악반의 이름이기도 하죠.

광주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산악반 실무를 맡은 담당자가 우리 모임에 커는 기대를 한껏 담아 다소 과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산에 다니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구름발치에 올라 세상을 평온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우리들의 바람을 잘 표현한 좋은 이름 같습니다.

‘구름발치’의 산행이 시작될 지 이제 1

행을 즐깁니다. ‘산에는 언제가고 어느 곳으로 갈까?’고 반갑게 묻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할 정도입니다.

체력에도 관심이 생겨 평소에도 운동하는 장애우도 늘고 있고, 산에 가셔도 서둘러가지도 않고 쉴때까지도 않고 서로 발을 맞춰 다닙니다.

꼭지어 함께 다니며 말걸전도 하고 장난도 요란하지만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다른 등산도 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행을 통해 느끼는 상쾌함, 맛있는

‘구름발치’와 함께하는 즐거움

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산에 갑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산에 올라 흘러내리는 땀의 상쾌함도 맛보고 서로의 노고도 위로하는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10여 차례 산행을 통해 등산을 위한 차림이며 장비·간식·식사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

에서부터 힘든 산행을 경험해가는 장애우들의 모습은 참 대견스럽습니다.

산행은 단순한 걷기 운동을 통해 육체적 훈련이나 정신적 성숙을 함께 할 수 있고 실용하기도 쉬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허술한 산행 차림에 오합지졸 마냥 급하게 서둘러 가는 녀석들, 거친 산길을 제대로 걷지 못해 찢힐때마다 뒤처지는 녀석들로 대열도 흐트러진 어수선한 행렬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숙제처럼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이끌려 산길을 헤메던 장애우들은 이제 산

먹을거리 하나, 서로 주고 받는 미소 등 사소하고 하찮은, 이 단순한 즐거움에 이들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너무도 바라는 것들이 많아 죽을 때까지 만족을 느낄 겨를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결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름발치’ 산행은 편안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즐거움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봉사나 희생이 없어도 스스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의 산악반입니다. 장애우들 여럿이 함께 산길을 걸으며 체력을 다지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발치’ 산행을 함께 하고픈 장애우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애호협회에서는 ‘장애우 부모님들과 장애우가 함께하는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좀 복잡해지기는 해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겠지요. <광주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산악대장>

광주일보를 읽고

인터넷 모방범죄 만연... 포털들 차단대책 마련해야

광주일보 7월 25일자 ‘인터넷은 범죄 교습소?’라는 기사를 보고 쓴다.

‘오토바이 열쇠박스 분리와 시동거는 법’을 인터넷을 검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10대 고등학생들이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열쇠 하나로 각종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만능키 제작법, 키없이 시동거는 법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글에 대한 검열을 강화, 신속히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네트즌들의 의심 부족만을 탓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충분한 우려가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닌가. ▲최준혁·광주시 북구 두암동

시설

‘폭염’ 비상, 여름철 안전대책 만전 기해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여름철 광주·서울·대구·인천 지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천127명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천2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은 범위의 광범위성, 여러 지역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연일 발령된 가운데 무리한 산행을 하다 탈진하거나 물놀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집중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여서 여름철

간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폭염이다. 지난 2003년 3만5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럽의 폭염이 그 대표적 예다.

無等鼓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장관을 지냈던 미키 캔터는 클린턴의 주요 선거 참모 중 하나였다. 우리에게도 한국시장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인물로 별로 유명한 감정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는 특히 스크린쿼터 철폐 등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익을 한국측에 강요했다.

할리우드 연예인의 민사 전문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의 할리우드 인맥을 활용, 유명 연예인들을 클린턴 진영에 대거 합류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미국의 변방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 클린턴을 일약 전국적 인사로 만든 데는 미키 캔터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클린턴은

이를 잊지 않았다. 그 또한 할리우드의 은공을 영화시장 개방이란 카드를 통해 관철시켰다. 그야말로 ‘평귀고 일락’의 거래가 아닌가.

전통적으로 할리우드는 민주당의 표밭이다. 워렌 비터, 아네트 베닝, 미셸 파이퍼,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등이 대표적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물론 켈리

포니아 주지사에 오른 아놀드 슈워제거나 미국 총기협회장을 지낸 찰턴 헤스턴 등 골수 공화당 지지자도 적지 않다.

17대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의 대선 후보 ‘커밍 아웃’이 시작됐다. 탈린트 이덕화, 유인촌, 정홍재 등이 이명박 후보를, 설운도, 김수희, 김수미 등은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가수 조영남은 손학규, 정동영 후보 행사에서 축가를 불렀다.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는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87년 대선 때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하이라이트는 지난 2002년 대선,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노사모’를 이끌었던 명계

남과 문성근은 정치색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심현섭과 박철은 슬럼프에 빠졌다. 대선의 계절, 어김없이 시작된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가 선거를 촉매도 승화시키는 양념이 됐으면한다. 지나친 당파성은 자신은 물론 팬들도 지치게 만든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

미키 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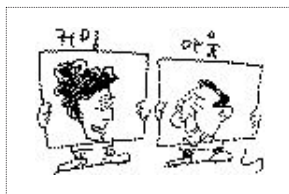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